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우리협회는 체신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94년 4월부터 '94. 5월 까지 두달간 정보통신관련 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4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한국 정보통신사업의 현황과 2005년까지의 각 부문별 전망자료를 수록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다. -편집자주-

'93 정보통신사업 시장 6,684억원, 34.5% 성장

이번 조사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중 기간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제외한 정보통신사업(부가통신서비스)분야다. 서비스 형태와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통신(VAN)사업, 데이터베이스(DB)사업, 정보처리(DP)사업, 데이터단순전송(DC)사업, 음성정보제공(700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부가통신사업은 다시 전자사서함(E-mail), 신용카드조회시스템(CCIS),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전자문서교환(EDI) 사업으로 세분하였다.

93년도 정보통신사업 시장규모는 6,68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34.5% 성장한 규모로, 87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45.6%)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나, 89년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의 침체를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3년 정보통신사업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4,170억원으로 집계되어 92년에 이어 93년에도 정보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의 시장추이는 정보마인드의 저변 확산에 힘입어 정보서비스 대상이 산업분야에서 국민생활로 점차 확대되고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보통신사업의 급속한 시장규모 확대는 이 분야가 사업성이 높은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다.

93년 들어 나타난 정보통신사업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는 전화정보제공서비스(700서비스)가 전년대비 206%의 고도성장을 통해 562억원의 매출 실적을 보여 전체 정보통신사업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등장한 전화정보제공서비스가 단기간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확대를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 대형프로젝트 수행, 무역·유통 VAN구축활동, 네트워크 서비스지역 확대, 매출의 확대, 회선품질 향상 노력 등도 93년 들어 눈에 띄는 변화들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VAN사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포함한 VAN사업자 활성화 계획 등 각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기업의 경영실적 또한 호전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정보서비스 이용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현황

겸업비율 감소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시장확대와 전문화 추세로 93년의 경우 [표 1]과 같이 정보통신사업자 중 겸업을 하고 있지 않

는 전문업체는 전체 사업자의 67.5%인 280개로 집계되어, 정보통신사업 각 분야의 전문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32.5%로 나타나 정보통신사업이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업체의 비중은 정보통신사업 영역의 분화와 전문화 추세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수요시장의 정착속도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제휴, 자본합작, IVAN협약

전체 정보통신사업체 가운데 23.6%가 외국회사와 기술제휴 및 합작형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사업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어 자본과 고급 인력이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및 통신관련 전문인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은

[표 1] 정보통신사업자의 겸업현황

(단위 : 업체, %)

겸업수	91년		92년		93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단독	117	47.0	210	64.2	280	67.5
2개 겸업	73	29.3	67	20.5	67	16.1
3개 겸업	43	17.3	27	8.3	37	8.9
4개 겸업	16	6.4	14	4.3	16	3.9
5개 겸업	-	-	5	1.5	7	1.7
6개 겸업	-	-	3	0.9	6	1.5
7개 겸업	-	-	-	-	1	0.2
8개 겸업	-	-	1	0.3	1	0.2
계	249	100.0	327	100.0	415	100.0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시장경쟁력 강화와 서비스개발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외국 통신사업자와 기술제휴나 합작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기능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IVAN협약 등을 통해 정보서비스망을 강화하고 있어 조만간 세계적인 규모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기술제휴국과 제휴업체는 총 9개국 49개 업체로, 이들 중 외국과의 기술제휴국은 미국이 27개사(55.1%)로 가장 많으며 일본 8개사,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4개사, 독일 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 사업자와 외국사업자의 자본합작은 총 8개국 37개 업체로, 이들 자본합작 업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싱가포르 2개업체, 홍콩, 영국,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가 각각 1개 업체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 중 총 11개 업체에서 5개국 12개사와 국제 부가통신협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자의 신규참여 증가

93년 정보통신사업의 총자본금 규모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209,879억원으로 집계되어 87년부터 93년까지 연평균 2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억원 미만의 자본금 규모를 가진 업체는 전체 365개 사업자 중 223개 업체인 61.1%나 차지하고 있고 업체당 평균 자본금 규모는 전년대비 16.1% 감소한 575.01억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산출되고 있어 비교적 자본금

규모가 작은 신규사업자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의 업체도 전체 사업자 중 18.3%를 점유하고 있어 정보통신사업 참여 업체규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93년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총 종업원은 373,6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써 87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9.5%의 증가율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통신사업자의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전년대비 20.5% 감소한 923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전체 사업자 가운데 13.1%를 점유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50명 이하의 종업원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는 전체 사업자의 59.6%에 해당되고 있으며 30명 이하의 종업원 규모를 가진 업체는 무려 75.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종업원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3년 정보통신관련 종업원의 경우, 총 18,939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총종업원의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 역시 87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22.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소규모 정보통신 전문업체들의 신규 참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관련 종업원 규모별 정보통신사업자 비율을 보면 30명 미만의 정보통신관련 종업원을 가진 업체가 전체 사업자의 72.5%, 100명 미만인 업체가 89.2%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며 영세하지 않은 대기업도 이 분야의 전문인력 구성비율은 낮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업체당 평균 정보통신관련 종업원수는 49명으로 나타나 87년 이후 연평균 11.0%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업체당 평균 정보통신관련 종업원의 감소추세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통신시장이 점차 세분화 되어감에 따라 종업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둘째는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타산업에 비해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종업원의 수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유능한 인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기 직접구매 증가추세

[표 2]는 주전산기의 구입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직접구매가 76.1%, 리스가 20.0%, 렌탈이 3.9%로 조사되어 직접구매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92년과 대비하여 볼 때 직접구매는 17.3%가 증가하고 있고, 리스와 렌탈은 각각 14.0% 및 3.3%씩 감소하고 있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주전산기 구입시 리스와 렌탈형식 보다는 직접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언론기관, 교육기관,

증권·금융기관, 인쇄·출판·서적·광고·기획, 기타 제조 및 도매업, 기간통신사업, 기간서비스업종은 주전산기기 구입에 있어서 직접구매가 많으면, 정보통신전문업과 유통, 운수, 관광업종의 경우 리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렌탈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전기·전자 제조업종에서 우세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에서는 구매와 리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장동향

연평균 45.6%의 매출증가

매년 높은 증가율과 함께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93년 시장규모는 6,68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각 사업별로는 정보처리 4,209억원, 데이터베이스 884억원, 부가통신서비스 524억원, 데이터단순전송 504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가율로 보면 전자사서함(E-Mail), 신용카드조회시스템(CCIS),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전자문서교환(EDI)을 포함하는 부가통신서비스가 전년대비 60.4%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하였으며, 데이터단순전송이 28.2%, 정보처리가 26.6%, 데이터베이스가 19.6%의 성장률을

[표 2] 정보통신사업자의 주전산기기 구입형태

(단위 : %)

구분/연도	91	92	93
구 매	52.9	58.8(+5.9)	76.1(+17.3)
리 스	42.6	34.0(-8.6)	20.0(-14.0)
렌 탈	4.5	7.2(+2.7)	3.9(-3.3)
계	100.0	100.0	100.0

※ 주) ()은 전년대비 증감임.

각각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정보통신사업의 93년 투자규모는 4,17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각 사업별로는 정보처리 2,

335억원, 데이터베이스 883억원, 데이터단순전송 559억원, 부가통신서비스 393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보통신사업의 매출현황

(단위 : 억원, %)

구분/연도	87	88	89	90	91	92	93	연평균증가율
정보통신사업	701 (-)	1,100 (57.9)	1,625 (47.7)	2,313 (42.3)	3,082 (33.2)	4,968 (61.2)	6,684 (34.5)	45.6
부가통신 (VAN)	21 (-)	36 (70.6)	78 (117.5)	127 (61.7)	208 (64.0)	327 (57.2)	524 (60.4)	70.8
데이터베이스 (DB)	179 (-)	242 (35.5)	326 (34.8)	471 (44.2)	567 (20.5)	739 (30.2)	884 (19.6)	30.5
정보처리 (DP)	463 (-)	756 (63.2)	1,115 (47.5)	1,561 (40.0)	1,999 (28.0)	3,325 (66.4)	4,209 (26.6)	44.5
데이터단순 전송(DC)	38 (-)	66 (72.3)	106 (59.6)	156 (46.5)	308 (99.5)	394 (27.7)	504 (28.2)	53.6
음성정보제공 (700)	-	-	-	-	-	184 (-)	562 (206.0)	206.0

※ 주)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표 4] 정보통신사업의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연도	87	88	89	90	91	92	93	연평균증가율
정보통신사업	1,131 (-)	1,770 (56.5)	1,954 (10.4)	2,865 (46.6)	3,345 (16.8)	3,675 (9.9)	4,170 (13.5)	24.3
부가통신 (VAN)	19 (-)	85 (339.4)	118 (38.9)	146 (23.9)	315 (115.3)	289 (-8.1)	393 (35.7)	65.2
데이터베이스 (DB)	294 (-)	403 (37.2)	574 (42.3)	918 (60.0)	958 (4.4)	777 (-18.9)	883 (13.6)	20.2
정보처리 (DP)	744 (-)	1,170 (57.2)	1,114 (-4.8)	1,636 (46.9)	1,800 (10.0)	2,131 (18.4)	2,335 (9.6)	21.0
데이터단순 전송(DC)	74 (-)	112 (52.1)	148 (32.1)	165 (11.5)	272 (64.8)	478 (75.7)	559 (17.0)	40.2

※ 주)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이를 증가율로 보면 부가통신서비스가 전년대비 35.7%의 가장 높은 투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데이터단순전송이 17.0%, 데이터베이스가 13.6%, 정보처리가 9.6%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지속적인 사업성 향상

정보통신사업 부문의 투자대비 매출비율은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의 이익률 산출방식은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대 매출이라는 총량적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이익률을 계산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반적인 정보통신 사업의 경영상태 및 사업성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사용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90년부터 정보통신사업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92년부터는 매출액이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어 사업성이 엿보이고 있으며, 93년 들어서는 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0.25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05년까지 연평균 21.9% 성장 예상

93년까지 연평균 4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시장추이는 정보마인드의 저변확산에 힘입어 정보서비스 대상이 산업분야에서 국민생활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수요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공 프로젝트 수행, 무역·유통 VAN 구축활동, 네트워크 서비스지역 확대, 매체의 확대 등 기업들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 활성화 계획 등 각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어 정보통신사업의 높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은 정보화의 촉진과 향후 다양하게 발전될 정보서비스 형태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어 2005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어, 정보통신사업의 시장규모는 1995년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에는 7조8,64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산업으로서 국내산업부문에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1993년 현재 국민총생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1995년 0.36%, 2000년 0.63%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에는 국민총생산의 0.9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정보통신사업의 이익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연도	87	88	89	90	91	92	93	연평균증가율
정보통신사업	701	1,100	1,625	2,313	3,082	4,968	6,684	45.6
매출(A)	(-)	(56.9)	(47.7)	(42.3)	(33.2)	(61.2)	(34.5)	
정보통신사업	1,131	1,770	1,954	2,865	3,345	3,675	4,170	24.3
투자(B)	(-)	(56.5)	(10.4)	(46.6)	(16.8)	(9.9)	(13.5)	
이익률(A/B)	0.62	0.62	0.83	0.81	0.92	1.35	1.60	

※주) ()은 연도별 증가율임